

노정권퇴진 투쟁 계속 확산

강군등 사망관련 철야농성, 가두시위 벌여

명지대생 강경대(경제1)군 사망에 따른 전국적 시위가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각 단체, 과별로 단식, 철야농성,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속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관련기사 2, 6, 7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난 1일 오후1시 총학생회 주최로 '강군대 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자주정

회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29일 투쟁보고 및 정세보고와 과단위 모범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신방과의 경우 '투쟁본부'를 구성, 철야농성과 지하철 선전전 등 각 학과별로 투쟁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집회가 끝난후 참석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기동까지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각 단체는 계

속해서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주요 단체별 상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본교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거의 모든 과가 교수와 학생이 함께 강의시작전 목숨을 걸고 강의가 끝난 후 문리대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참배를 하기도 했다. 또 화학과 4명의 여학생이 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비롯, 각 학과에서 학생들이

본임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3일 오후5시 문리대 앞에서 10여명의 학생이 노정권타도를 결의하는 행사를 쓰고 교내 선전전을 가졌다. (사진)

이후 일정은 단체 학생회가 7일 결의대회를 통해 9일부터 3일간 동맹휴업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예과 1,2학년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으며 6일 학년별 토론, 7일 정치토론회, 8일 의과대 총학생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9일 외국어교육관 앞 민주광장에서 약 7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강경대 학우 추모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경회 학우 결의대회를 갖고 집회가 끝난후 가두로 진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전투경찰들과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시위에서 박병희(산업공·2)군을 비롯한 10여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30일에는 5백여명의 학생들이 신길로 진출해 선전전과 평화시위를 벌였다.

또한 그 다음날인 5월1일 역시 학생들은 성남시내로 나가 용성총련 9개대생 및 성남시민 7천여명과 함께 평화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모스크바 국립대와 자매결연
이달중 '21세기를 ...'공동세미나 계획

본교는 지난3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소련 모스크바 국립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또한 30일 자매결연행사와 더불어 소련대표단과 본교 보직교수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구노프 총장에 대한 대학장 수여식이 있었다.

양문호(의대 의학과)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학장 수여식은 메달수여, 자매결연조인식, 축하, 답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영식 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조인식은 한·소국교 정상회담과 시기를 같이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나아가 아·태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또한 소련 로구노프 총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자매결연은 양국의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며 양자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국 대학은 이번달 내로 '21세기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로구노프총장은 지난1일과 2일 각각 서울캠퍼스 대회의실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페레스 트로이카와 소련의 국내정세'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2·10면)

장학금 내역 발표
총 1천6백79명에 8억1천2백여원

서울캠퍼스 학생회는 91학년도 1학기 장학금지급내역을 발표했다.

이번 장학금 지급내역은 작년 대비해 1백71명 감소한 1천6백79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작년부터 졸업정원제가 입학정원제로 바뀐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액수는 8억1천2백95만5백원으로 작년보다 4천여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교내 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장장학:1백13만6천9백50원(2명) ▲입시장학:11억4백76만1천원(1백2명) ▲생활보조비:90만 원(2명) ▲보훈장학:5천4백22만1백원(1백3명) ▲경희가족장학:4천3백93만6천9백50원(41명) ▲우

정장학:8백49만7천8백75원(19명) ▲고시A장학:1백67만3천9백원(2명) ▲고시B장학:6백만원(12명) ▲음악실기장학:4백50만원(15명) ▲미술실기장학:1백80만원(6명) ▲체육실기장학:1억8백97만6천6백원(1백명) ▲예비군장학:2백40만원(12명) ▲학군단장학:1백50만원(5명) ▲모범B씨클장학:6백만원(30명) ▲잘살기장학:8천4백93만6천75원(1백98명) ▲우수A장학:1억1백75만6천4백50원(1백8명) ▲우수B장학:1억1천5백20만원(2백88명) ▲모범A장학:5천3백70만원(1백79명) ▲모범B장학:6천5백86만원(3백28명) ▲모범C장학:3천5백40만원(1백18명) 등이다.

고덕 제2의료원기공

지하3층·지상13층 등 총 1만5천평

강동구 상일동 1백49번지에 세워질 고덕의료원 기공식이 지난 달 25일 2백70여명의 내외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은 그간 경과보고, 총장격려사, 시삽회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영식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덕의료원을 경영하는 세계사회 속에서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고덕의료원은 대지면적 4천8백평, 건물연면적 1만5천평, 병상수 6백30개(부속병원 4백30 병상, 한방병원 2백병상 지하3층과 지상13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또한 고덕의료원 관계자는 최철단 의료장비와 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환자편의 극대화, 양·한방의 접목을 통한 제3의학 창출 등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87년 5월1일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고덕제2의료원은 올해 9월

25일 착공, 94년 3월2일 개원예정이다. (관련기사 11면)

수원 교심위 전체 총회 10일 체과대 시청각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는 오는10일 체육과학관 시청각실에서 교심위 전체총회를 개최한다.

중앙 교심위 및 단체·과교심위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심위 전체 총회에서는 교심위 사업에 대한 교양작업들이 이루어지며 91학년도 교심위 총노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언론탄압 분쇄집회
탄압사례보고와 결의문 낭독

'대학언론탄압분쇄 결의대회'가 지난2일 오후 2시 2백여명의 서울지역 언론협의회(이하 서언협)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운대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강동식 광운대신문사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기현 성대신문사 편집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만청년학도의 눈과 귀가 되어 선봉선봉으로 투쟁의 최전봉에 서자"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학교당국과 편집자들 권, 광고실사회복문제로 진통을 겪고있는 서울교대, 서강대, 성신여대등의 탄압사례보고와 시국성명서, 대학언론탄압분쇄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한편 집회후 6시부터 광운대 언론협의회 주최로 '노동자노래단'의 공연, 'KBS 4월투쟁'에 관한 다큐멘터리 슬라이드가 상영되었다. (관련기사 5면)



◇학생들이 지난3일 문리대 앞에서 결서를 쓰는 모습

조태일 동문 '편운문학상' 수상
김재홍 교수

의대 조병수 교수도 학술상받아

본교 김재홍(문리대·국문)교수와 조태일(국문·14회)동문이 지난 2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열린 '제1회 편운문학상' 시상식에서 각각 비평과 시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조태일동문은 "적극적인 현실 반영때문에 나의 창작물은 판권 조치등 탄압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시인의 역할은 인간에게 신뢰와 사랑, 꿈을 심어주는 것이기에 어려운 시대이지만 굴하지 않고 좀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했

이러 김재홍교수는 "열심히 노력하라는 책적으로 알았다. 문학이란 자기구원의 길임과 아울러 사회와 역사를 향해 열린 길임을 명심하고 주어진 임무이자 목표인 창작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운문학상'은 편운 조병수시인이 43년여의 시작활동을 통해 모은 고료 및 상금으로 올해 처음 제정되었다.

이 상은 수상년도를 기점으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국시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

상시킨 시인 및 시문학자에게 수여된다. 한편 의과대학 조병수(소아과)교수는 대한의학협회와 동진제약에서 수여하는 제8회 동진스미스클라인 학술상에서 연구부문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하게된 연구계획 제목은 '미세변화 신중후군의 발병기 전에 있어서 인터로킨-4와 FcER II의 역할에 관한연구'로서 최근에 발견된 인터로킨-4가 신중후군의 병인에 어떤작용을 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인터로킨-4의 억제나 촉진 등으로 조절함으로써 선발적인 신중후군의 치료법개발에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의학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근조

살인정권의 살인무기

즉각
해체

“누가 경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이 처참한 모습을 찍어 세상에 널리 알려요”

-아버지 강민조씨의 말

열사여 고이가소서

강경대 열사(명지대·경제1년)

세상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명지대 학자 완전 승리 및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서부서 진격투쟁에 참가 연락병담당.
- 4시 10분부터 5시까지 전경과 대치 공방전.
- 5시 10분경 최루탄과 지랄탄 난사후 백골단침탈
- 학우들이 밀려 후퇴할때 뚫어진 담장으로 도망가다 붙잡힘.
- 백골단(시경96중대) 5~6명에게 붙잡혀 쇠파이프와 구두발로 5분간 전신구타 당함.
- 백골단에게 끌려가다가 백골단이 길에 버리고감.
- 스스로 열걸음 정도 걸다가 학우들이 부축하자 실신
- 열걸음은 이미 피땀, 입술과 이마 핏기없고 동공이 벌어짐.
- 5시35분 보건소에서 맥박이 잡히지 않아 성가병원으로 옮김.
- 성가병원에서 둔탁한 물체로 머리를 타격당해 뇌출혈과 이마뼈 함몰로 사망단단.
- 연세대 세브란스 연안실에 안치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500여 서충련학우 시신을 지키며 밤샘농성.

